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루카 15,32)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4주일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입당송** 이사 66,10-11 참조
- **제1독서**
여호 5,9ㄱ-10-12
- **화답송** 시편 34(33),2-3.4-5.6-7(◎9ㄱ)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2독서**
2코린 5,17-21
- **복음환호송** 루카 15,18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음**
루카 15,1-3.11ㄴ-32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대화로 풀어 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산불 재해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받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주님, 산불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 하오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도 아픔을 겪는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도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사순 시기의 재계를 지키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다가오는 파스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송**
루카 15,32 참조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신청

- ▶ 일 정: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인 원: 선착순 40 명
- ▶ 예상 비용: 1 인당 \$1,200 (항공권 별도)
- ▶ 접수 방법: 순례 담당 여행사인 '마리아투어'에 직접 신청 (mariatour121@gmail.com)
(항공권 구매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첨부 메일 발송, 신청서는 사무국에 문의)
중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사무국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캠] 부활 시기 한인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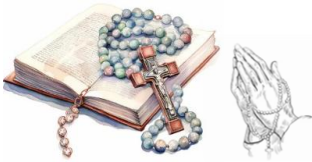
- ▶ 방 문: 쿠웨이트 공동체, 김상호 알렉시오 신부님
- ▶ 기 간: 4 월 10 일(목) ~ 4 월 27 일(주일)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 38일 만에 퇴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호흡기 질환과 폐렴 치료를 위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지 38일 만인 3월 23일 퇴원해 거처인 성녀 마르타의 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퇴원 당일 삼중기도 메시지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전쟁의 터무니없음**을 언급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교황청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장치를 통한 산소 공급에 더해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퇴원 후 앞으로의 치료 및 건강을 위해서도 **교황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산불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현재까지도 건잡을 수 없이 번지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동교구의 신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고,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아캠 교우 분들도 함께 기도해 동참해 주십시오.

[교종 프란치스코] 3월 기도 지향

3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바이 공동체>: 주일학교 물놀이 행사



3월 19일 (수)

<카이로 공동체>: 미카엘 신부님 사목 방문



3월 19일 (수) ~ 22일 (토)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드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위로문



지난 3월 중순부터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해진 날씨의 영향으로 피해 지역을 급속히 확산시키며 인명 피해와 문화재 소실까지 낳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 천주교회 주교들은 매 순간 전해지는 소식에 애타는 마음으로 불길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특별히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천주교회 모든 구성원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복돋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그리고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정부 관계자와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한시라도 빨리 모든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강산에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이 머물러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3월 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 용 훈 주교

쥐엄나무



쥐엄나무는 신약성경에서 돼지 밥으로 통한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아들이 돼지치기가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먹기를 바랐지만 얻지 못했다고 한다.(루카 15,16) 돼지 밥으로 언급된 이 열매가 바로 쥐엄 열매다. 기아가 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로 배를 채웠다 하니, 일종의 구황작물이기도 했다. 열매는 콩꼬투리 모양으로 주렁주렁 열리는데, 맛은 초콜릿하고 비슷하지만, 끝 맛이 짝아서 그리 인기 있는 열매는 아니었다.



<쥐엄나무에 열려 있는 열매(좌)와 완숙된 열매의 모습(우)>

쥐엄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하고, 영어로는 ‘케롭’(carob)이라고 한다. 일명 메뚜기 나무로 통하는데, ‘하루브’라는 이름이 ‘하가브’(메뚜기)하고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듯하다.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마르 1,6)가 쥐엄 열매였다고도 추정한다. 때문에 쥐엄 열매는 ‘세례자 요한의 빵’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이 열매는 한 여름이 지날 무렵부터 갈색으로 완숙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추수할 수 있어, 가난한 이들의 먹을거리이자 짐승 사료가 되었다. 그러니 고대에는 쥐엄 열매가 가난의 상징이었던 셈. 그러다 위상이 역전된 건, 쥐엄의 열매인 캐롭이 다이아몬드 무게를 재는 ‘캐럿’(carat)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쥐엄 열매는 예부터 무게를 재는 단위였다. 성경에 나오는 ‘게라’(에제 45,12)가 그 씨를 가리키는 도량형이다. 게라 하나는 0.45~55그램 사이였다고 한다. 씨앗의 크기는 수박 씨의 두 배 정도로, 완두콩보다는 작다. 그런데 이렇게 보석 단위가 되어 신분이

급상승했으니, 그 반전이 눈부시다.

쥐엄나무는 구황작물이자 동물 사료로서 좋은 역할을 해왔지만, 열매는 일흔 해가 지나야만 맺힌다. 탈무드(타아닛 23a)에는 쥐엄나무의 이런 특성에 얽힌 이야기가 나온다. ‘호니’라는 의인 이야기다. 그는 바빌론으로 유배당한 이스라엘(시온)이 유배에서 풀려나는 데 일흔 해 걸렸는데(2역대 36,21; 예레 25,12 참조), 어떻게 그동안 잠을 자면서 꿈꾸는 일이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쥐엄나무를 심고 있는 남자를 보고,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나 심느냐고 물었다. 그가 70년이라고 대답하자, 호니는 ‘그럼 당신은 70년 더 살 자신이 있으신가 보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는 내 조상이 심어놓은 쥐엄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소. 이 나무는 내 후손을 위한 거요’라고 대꾸했다. 그 뒤 호니가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그런데 깨어 보니 어떤 남자가 쥐엄 열매를 모으고 있지 않겠나? 그 남자에게 당신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물어보니, 그의 손자라고 대답했다. 곧, 호니가 자는 동안 일흔 해가 흐른 것이다. 놀란 호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무도 그가 호니라고 믿어 주지 않았다. 이에 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올린 뒤 쓰러져 죽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러하다. 유배의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가는 길은 멀어 보여도, 일단 지나고 나면 쏠살같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건너뛰려면, 호니처럼 평생 보낼 시간과 그 안에 찾아올 수많은 경험, 사연도 희생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 시간을 압축해서 그다음 시대로 곧장 간다면, 그때도 여전히 예전의 나로 남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저마다 소명을 행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이 세상이지, 그다음 시대가 아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70년을 기다려 열매를 내보내는 쥐엄나무가 등장한다.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0> I.N.R.I 가 예수 그리스도

교리실을 빙 둘러보던 학생이 십자가상을 한참을 바라보다니, “선생님, 십자가 위에 글자가 있는데 왜 새겨져있는 것이고, 무슨 뜻이에요?”라고 질문합니다.

십자가상 위에 새겨진 'I.N.R.I'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 저와 같이 궁금한 것이 많은 이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과 상징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파(A)와 오메가(Ω)

그리스어 문자 'Α'와 'Ω'는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Α'와 'Ω'는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주를 지배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돼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묵시 22,13)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상징은 종종 십자가나 키로(✠)의 형태로 표현되며, 주님 부활 대축일에 사용되는 초에 새겨집니다.

키로(✠)

초대 교회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키로'는 그리스어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두 글자 카이(X)와 로(P)를 따서 꾸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제단·제구·제의 등에 쓰입니다.

물고기(ΙΧΘΥΣ, 익투스)

물고기는 로마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던 암호로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의 어절 첫 글자를 따로 모으면 물고기(ΙΧΘΥΣ)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 : Ι - Ιησούς (예수스)

그리스도 : Χ - 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

하느님 : Θ - Θεός (테오스)

아들 : Υ - Υιός (휘오스)

구세주 : Σ - Σωτήρ (소테르)

신약성경에서 물고기는 참된 신앙고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마태 13,48-49; 루카 5,1-11; 요한 21,1-13 참조)

I.N.R.I

이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요한 19,19)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유다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붙인 명패로, 예수님의 죄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 위에 라틴어 어절 첫 글자를 딴 'I.N.R.I'를 붙입니다.

예수 : I - Iesvs (예수스)

나자렛 사람 : N - Nazarens(나자레누스)

임금 : R - Rex (렉스)

유대인들 : I - Iudaeorum(유데오름)

IHS

이는 예수님을 뜻하는 모노그램(두 개 이상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한 합일문자)입니다. 예수의 그리스어 표기(Ιησούς)는 대문자로 'ΙΗΣΟΥΣ' 또는 'ΙΗCOYC'입니다. 로마자로는 'IHSOVS'라고 쓰는데, 이때 첫 3글자를 따서 만든 모노그램이 바로 IHS입니다. IHS는 15세기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가 창립한 예수회(Societas Iesu)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제 3 호 정답 공개

찬						공	복	재	
미	사							의	
	무				그			수	
	엘	리	야		리		성	요	셉
					스		체	일	
	주	님	의	기	도				
			제			기	리	에	
십	자	가	의	길				즈	
	주							라	마



당첨자: 김민재 요셉 (아부다비 공동체)

정답자: <쿠웨이트 공동체>

서동숙 베로니카

<두바이 공동체>

박수경 마르가르타

전지은 세로띠나

우성훈 베드로(주일학교)

우동훈 바오로(주일학교)

한동훈 라파엘(주일학교)

<아부다비 공동체>

손해경 소피아

서민희 세라피나

박준철 대건 안드레아

김현준 라파엘(주일학교)

채유찬 파트리치오(주일학교)

김민재 요셉(주일학교)

손성빈 가브리엘(주일학교)

김민찬 요한(주일학교)

강주원 스테파노(주일학교)

박지울 프란치스코(주일학교)

박재현 안드레아(주일학교)

이태주 그레고리오(주일학교)

김항기 실바노/장성자 효주 아녜스

백귀복 마리아

※ 정답자 중 당첨자(1인)은 raffle draw로 추첨하였습니다.
당첨자 추첨 영상은 '아캠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캠 카페 (<http://cafe.daum.net/akccme>)



소금 한 꼬집



진실한 고백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우리를 하느님계로 이끄시는
성령을 느끼게 합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